

# GAI 2014 Global Alternative Investment Insights 2014

## 우분, 올해 대체투자에 9000억원 투입한다

### “국내외 실물자산에만 6000억원 투자계획”



윤창호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분)가 올해 대체투자 분야에 9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한 유망상공회(ECC)와 공동으로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에 참

석한 윤창호 우분 단장은 올해 대체투자 계획에 대해 "국내외 부동산·사회간접투자(SOC) 등 실물자산에만 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올해 8600억원 가량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자산운용액만 42조4000억원에 달하는 우분은 국내 핵심 투자기관이다. 2004년부터 사모투자펀드(PEF), 부동산, 헤지펀드 등 국내외 대체투자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기준 실물자산 1조6000억원, 국내외 PEF 4670억원, 헤지펀드 2330억원 등 총자산의 4.17%인 1조7700억원을 대체투자 분야에 투입했다.

우분은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와 대체투자시장 성장세를 고려해 투자규모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2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 PEF의 경우 국내는 성과 우수 운용사 중심의 블라인드 투자를, 해외는 경기회복이 예상되는 북미·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한 레버리지 바이아웃(LBO)·메자닌 투자 전략을 수립했다.

실물자산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윤 단장은

"국내 부동산 분야에서는 임대수익이 확보되는 대형 오피스빌딩, SOC분야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중심으로 공기업 수준 신용등급을 보유한 국내 전력회사와의 공동투자를 진행한다"며 "해외 쪽은 에너지분야 투자기회 확대에 수익성이 보장된 인프라 펀드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우분은 헤지펀드에도 8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과거 성과가 부진한 펀드 일부를 환매하고 재간접펀드 중심의 투자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단장은 국내 대체투자시장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내부역량 강화 및 선진시장과의 공교한 협력을 꼽았다.

윤 단장은 "소수 기관을 제외하면 대체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대체투자를 수행하기가 어렵다"며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목표수익이 가능한 투자대상에 대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투자시장 경험이 풍부한 선진시장에서의 경험이나 지식 공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빅3 생보사 “환위험에도 해외 대체투자 유리”

국내 대형 생명보험사들도 장기 안정적인 투자처 확보를 위해 대체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13일 서울 잠종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에는 국내 '빅3' 생보사에서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임원이 총 출동해 대체투자에 향후 대체투자 전략을 설명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이철원 삼성생명 기업금융사업부장(상무)과 허석영 한화생명 투자전략팀장(상무), 김도수 교보생명 투자사업본부장(상무)가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미래 투자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내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이 은퇴이후를 대비해 가입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규모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가입하는 연금자산이 보험사로 흘러 들어간 양상이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으로는 수익률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험사들은 대체투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 보험사들은 해외 대체투자 시장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다. 국내 대체투자 시장에서 경쟁이 과열되면서 목표한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철원 상무는 "국내 대체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 해외쪽 투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자산에 투자할 때 환율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환율 리스크(위험)를 감안하더라도

국내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험사들이 해외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은 대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도수 상무 역시 "국내 시장에서만 투자해서는 보험사가 목표한 수익률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외대체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생보사들 대체투자 역사는 길지 않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0년대 초반과 중반 이후부터 인프라, 사모투자(PE),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 본격적인 대체투자를 진행해 왔다. 현재 국내 생보사들 대체투자 비중은 일반계정 운용자산 대비 약 8%~15% 수준이다. 일반계정으로 140조원을 ... [+more](#)

## 코스맥스BTI 뉴트리바이오텍 인수

지분 46.73% 취득  
건강기능식품사업 강화

코스맥스의 지주회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가 뉴트리바이오텍 인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맥스비티아이는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뉴트리바이오텍 보통주 192만3705주를 182억7750만원에 인수했다고 지난 13일 공시했다. 취득 후 지분율은 46.73%이다. 2002년 설립된 뉴트리바이오텍은 복합건강기능식품 전문 ODM·OEM업체다. 북향비타민, 다이어트 관련 액상·분말 형태의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 | [이용건 기자 +more](#)

## SK, 3개월 만에 회사채 추가 발행

5·7년 만기 2500억원 규모·차환용

SK그룹의 지주사인 SK가 3개월 만에 또다시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1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신용등급 AA+)는 이달 말 5년 만기 1000억원과 7년 만기 1500억원 등 총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SK는 지난 2월에도 25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수요예측에서는 총 6000억원의 수요가 몰려 흥행에 성공했으며 5년물과 7년물의 발행금리는 각각 연 3.427%와 연 3.680%였다.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회사채 차환에 사용될 것 ... | [전경은 기자 +more](#)

## KIC, 대체·전통투자 혼합으로 수익제고



추흥식 KIC CIO  
GAII 2014 기조연설

“대체투자와 전통투자를 적절히 혼합한 크로스-섹터(Cross-Sector) 투자 역량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추흥식 한국투자공사(KIC) CIO는 지난 13일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 기조연설에서 "국내 기관들은 아직까지 주식·채권 등 투자종목별로 부서가 존재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KIC는 크로스-섹터 투자 역량을 강화해 4%대의 실질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로스섹터 투자는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추 CIO는 "대체투자는 자산별로 리스크·리턴(Risk·Return) 전략이 달라 수익률이 높은만큼 리스크도 큰 단점이

있다"며 "대체자산에 전통투자상품을 적절히 섞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C는 지난해 9월 기준 총자산(약 646억달러 규모)의 8.4% 가량을 부동산·헤지펀드 등 대체자산에 투자한 상태다. KIC는 초장기 국부펀드라는 이점을 살려 총자산의 20% 수준까지 대체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추 CIO는 "국내 기관들의 대체투자가 잇따르면서 시장 여건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체투자 비중 확대를 선언했지만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CIO는 "대체투자에 참여하기만 하면 10% 중반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일부 기관투자자들에게 지나친 자신감을 심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 국부펀드 등 다른 기관투자들과 협력 투자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추 CIO는 "15개 정도 기관들이 모여 해외투자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국내외 기관들이 투자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전수하면서 함께 시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샘 로빈슨 | 에버리자산운용사 아시아 헤드

## “PE 성공열쇠는 일관된 전략과 매니저”



"성공하는 사모투자(PE)의 공통점은 전략의 일관성과 매니저 선정으로 집약된다."

샘 로빈슨 에버리자산운용사 아시아 헤드는 지난 13일 매일경제신문 레이더M이 개최한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I 2014)'에서 PE 전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로빈슨은 지난 10년간 PE가 부동산이나 주식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12.5%의 내부수익률(IRR)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경험을 가진 매니저들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준 상위 25% PE들은 18%의 IRR을 기록하는 것에 비해 하위 그룹은 마이너스인 것도 매니저 선정의 차이에서 온다는 것이다. 로빈슨은 "실적이 나쁜 펀드의

공통점은 팀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라며 "매니저 선정도 분산투자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벤처캐피탈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료 통화 소프트웨어인 스카이프에 투자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한 뒤 높은 수익율을 기록하며 매각에 성공했지만 벤처기업은 변동성이 높아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벤처투자는 소액지분 인수가기 때문에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을 변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PE 시장으로서 아시아의 ... [+more](#)

### | 기획취재팀 |

이하나 팀장 / 강두순 기자 / 강다영 기자 / 정지성 기자 / 권한을 기자  
신수현 기자 / 서태욱 기자 / 석민수 기자 / 이용건 기자 / 전경은 기자